

선교장 소장
『황정경(黃庭經)』 탁본의
철학적 생명관

김 백 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주 제 분 류

동양철학, 도교

주 제 어

『황정경』, 조선시대, 선교장, 양생, 신선

요 약 문

강릉 선교장에 소장되어 온 장서(藏書) 속에 『황정경』 탁본이 있다. 이 탁본은 『태상황정내경옥경』의 일부이며, 조선후기 향촌의 사대부 선비들이 도교의 양생수련에 관심을 갖고 수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은 조선왕조의 국가이념인 주자성리학의 이론과 명분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사적 변환에 따라 유교의 이념은 점차적으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장악력을 상실해갔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선교장의 소장도서 목록에 도교의 핵심 경전인 『황정경』이 포함된다. 조선후기 사대부 선비들은 서학의 다양한 서적들뿐만 아니라, 도교와 불교의 경전들도 열람하였다. 그 중에 『황정경』은 도교의 양생수련을 이야기하는 핵심경전의 하나이다. 『황정경』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내세우는 가치지향적 세계관보다는 무위자연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더 선호한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인의예지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현실의 문화생활을 고단하게 지속해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의 본연성을 실현하면서 우주자연과 존재론적으로 합일하는 전일적(專一的) 탈속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신체의 기능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 길이 바로 양생수련의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장생불사의 경지에 이르는 신선의 길이다.

접 수 일 : 2018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4일

생명연구 제50집 2018년 11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50, Nov 2018, pp. 127~170
<https://doi.org/10.17924/solc.2018.50.127>

선교장 소장 『황정경(黃庭經)』 탁본의 철학적 생명관

김백희
 한국학중앙연구원

I. 서론

선교장(船橋莊)은 강원도 강릉시 윤정동에 있는 조선 후기의 주택이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대표적인 한 예로서, 전주이씨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 후손인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지었다.¹⁾ 그 이후 10여 대에 걸쳐 후손이 살아오고 있다. 선교장은 다양한 민속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1) 선교장(船橋莊):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 이 집은 집터가 뱃머리를 연상하게 한다고 하여 선교장이라고 하는데, 전주이씨 이내번(李乃蕃)이 지었다고 한다. 사랑채인 열화당(悅話堂)은 1815년(순조 15)에 오은처사 이후(李厚)가 건립하였고, 정자인 활래정(活來亭)은 1816년(순조 16)에 이근우(李根宇)가 증건하였다고 한다. 안채·사랑채·동별당·서별당·사당·정자·행랑채를 골고루 갖춘 큰집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대표적인 한 예이다. 집의 배치는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서남향을 하고 있다. 전면에는 줄행랑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솟을대문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대문을 들어서면 중문간행랑이 나오고 서쪽으로 가면 사랑마당에 이르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릉 선교장」 항목.

그 중에는 귀한 서적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황정경(黃庭經)』은 선교장 소장 도서 중에 매우 희귀한 도교경전이다.

도교는 장생불사의 영원한 삶을 꿈꾼다. 영원한 삶의 모습에 관해서는 도교의 학파에 따라 다르다. 그 경지에 이르는 길도 매우 상이하며, 크게 뭉뚱그려 내단학과 외단학파로 분류할 수 있다. 『황정경』은 장생불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도교의 중요한 경전이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 도교의 수련서를 보유하면서, 도교적 양생술을 수련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사상 또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성리학이 지배적 영향을 끼쳤던 조선시대에 개인의 수련 차원에서 도교의 양생수련 서적이 은밀히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강릉 선교장의 보유 도서의 탁본 중 하나인 『황정경(黃庭經)』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 경전의 문헌적 개요를 살펴보고, 경전이 담고 있는 도교의 철학적 생명관을 조명하며, 조선시대 양반사대부 가문의 도교 수련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래 『황정경』의 탁본은 중국 서성(書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왕희지(王羲之)의 행서(行書)가 한중일 삼국에 널리 유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남아 있는 탁본의 실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교장 문서 중에 『황정경』의 탁본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서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I. 문헌적 소묘

강릉 선교장은 대토지를 소유한 장원(莊園)의 의미로서,

1760년대에 건립되어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을 이루어 왔다.²⁾ 최초 건립자인 이내번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인물이다. 즉 조선시대 국왕의 일가 속에 포함되는 왕족의 성씨로서, 전형적인 양반사대부의 부류이다. 그런데도 선교장은 건립 이후로 강릉지역의 염전을 개발·운영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이양법과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개간(開墾)으로 확장한 농지를 경영하였다. 이처럼 선교장은 양반사대부의 명분과 체통을 고수하기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실질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거대한 장원을 경영하였다.³⁾ 이러한 자원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선교장은 거대 문벌의 지위를 확보하고 강릉지역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졌다.

선교장은 지역적으로 강원도 강릉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릉의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적 위상이 높았으며, 지역사회의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건립자 이내번은 안동권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이는 가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⁴⁾ 선교장의 주인은 강릉지역에 정착한 가문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경제적 기반을 확장하였으며, 지역의 양반사대부 인물들과 폭넓게 교유하고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문인들이나 관료들 또

2) 차장섭, 「강릉 선교장의 형성과 발전」, 『장서각』, 3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7쪽.

3) 차장섭, 2018, 7쪽. 이 논문의 연구 성과에 따르자면, 가문의 지위를 높이고 문벌을 구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명첩(空名帖)을 구입하여 실직(實職)이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국가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 큰 문벌가문과 혼인을 맺는 것, 문집의 간행을 통해 가문의 학문적·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 가문의 사회적 지위에 부응하는 공익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 등이다.

4) 임호민, 「18-9세기 선교장의 지역적 위상 변화의 추이」, 『장서각』, 3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35쪽.

는 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선교장을 활용하였다.⁵⁾ 예나 지금이나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경제적 부의 축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부와 권력에 보태어, 문화적 소양과 고매한 인품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같은 시혜적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선교장은 이를 위하여 방대한 장서(藏書)를 수집하고 보존하면서 사대부 선비들이 향유하는 고급문화의 교류 기반으로 삼았다.

선교장의 장서의 성격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⁶⁾ “선교장의 장서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선교장 주인들은 19세기 초에 한양 재동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경영하였다. 그리고 대를 이어 서울에 거주하며 경화사족(京華士族)들과 교분을 나누고 당대의 유명한 장서가들에게 서적의 구입과 감별법 등을 배웠다고 전해진다.”⁷⁾ 선교장을 경영한 사람들이 한양과 근교에 거주하는 경화사족들과 교유한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18세기 전후로 문화의 중심인 서울지역 인물들이 향촌 사회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

5) 임호민, 2018, 35쪽.

6) 김민현, 「강릉 선교장 장서의 서지학적 고찰」, 『장서각』, 3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59쪽. 이 논문의 연구 성과에 따르자면, 장서각에서 수집한 강릉 선교장의 장서를 서지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經部 60종220점, 史部 124종738점, 子部 135종736점, 集部 204종865점, 성책고문서 42종42점으로 총 565종2601점이다. 주제별로 보자면, 경부는 易類와 四書類, 小學類, 사부는 政法類와 地理類, 자부는 術數類와 類書類 및 醫家類, 藝術類, 집부는 別集類와 總集類, 小說類의 비중이 컸다. 판종별 분석결과는 木板本 > 筆寫本 > 金屬活字本 > 石印本 > 拓印本 > 木活字本 > 謄寫本 > 新式印刷本 > 鈐印本 · 複寫本の 순으로 비중이 컸다. 시기별로 보자면, 15세기 1종3점, 16세기 5종36점, 17세기 13종102점, 18세기 21종185점, 19세기 83종557점, 20세기 90종231점으로 모두 200종1114점의 간행시기를 판별하였으며, 연대가 불분명한 그 외의 자료들은 조선후기 혹은 중국 청대에 형성된 자료들로 생각된다.

7) 김민현, 2018, 81쪽.

술 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지방의 향촌 사대부 선비들이 지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소통의 창구역할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지식인들이 중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서적의 수집과 유통이었다. 선교장은 막대한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서적의 수집과 구매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황정경』은 선교장이 보유하고 있던 장서 중의 하나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자기의 학문적 정체성을 나타낼 때 유학자를 표방한다. 이는 당연히 조선시대가 유학 특히 주자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통치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유학의 기본경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암송하고 숙지해야만 과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어려서 문자를 익히는 순간부터 유가의 경전을 배우고 체화시키며 성장한다.⁸⁾ 모든 지식인은 자연스럽게 유학자로서의 자격과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황정경』은 유가의 문헌이 아니라 도가 또는 도교의 서적이다. 특히 이 책은 전형적 도교의 양생수련 서적이며, 도교의 도사들로부터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숭상되는 책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목록에서 『

8) “조선 왕조의 개국부터 국가경영의 주역이 된 조선의 사대부(士大夫)들은 이후 500여 년간 실질적인 관료로서 지배그룹을 형성하고, 또 일반 백성의 지도계층으로서 향촌(鄉村) 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선왕조 창업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국가 경영의 주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본래 유학의 정치사상에서 볼 때, 국가의 근본은 백성(百姓)이며, 백성을 인의(仁義)의 정치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국왕과 사대부의 의무이다. 이러한 유학적 이념을 체득한 성왕(聖王)과 사대부 신하(臣下) 관료들이 백성을 이끌어 간다. 사회문화적으로 유학적 사대부들의 정신문화를 보자면, 사대부 지배계층 스스로 자신의 마음수양과 실천적 행위의 모든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사대부의 유교윤리이다.” 김백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선비-조선시대 사대부의 윤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3쪽.

황정경』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선왕조의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황정경』과 같은 서적을 이단(異端)·사설(邪說)로 매도하기 때문에, 이런 서적을 보유하고 학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향촌사회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유하고 활동하는 일련의 문화 분위기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는 주자성리학의 교조적 분위기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식인의 각성과 궤를 같이하는 면이 있었다. 이미 조선후기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근대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에 부응하는 실학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도교의 양생수련서인 『황정경』이 사대부 선비들의 장서목록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황정경』은 『태상황정외경옥경(太上黃庭外景玉經)』·『태상황정내경옥경(太上黃庭內景玉經)』·『태상황정중경경(太上黃庭中景經)』을 아울러 부르는 용어이다.⁹⁾ 중국 위진(魏晉) 시대의 도교 수련가들이 양생(養生)·수련(修鍊)의 원리와 방법을 담아서 7언 시(詩)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황정경』은 위진 시기 갈홍(葛洪)이 편찬한 『포박자(抱朴子)』 「하람(遐覽)편」에 명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도교 도사들에게 널리 읽혔던 양생수련서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내용의 완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7언 배율(排律)의 시적 운문(韻文)으로서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선교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황정경』 관련 문서는 총 1종으로서, 바로 『황정경(黃庭經)』 탁본(拓本)이다. 기본적인 형태서지는 다음과 같다.

9) 최근에는 『태상황정중경경』을 『황정경』에 포함하지 않는다.

크기: 27.8×18.9cm

형태: 탁본

내용: 1면 - 서제(書題)

2면 - 판독이 어려운 그림

3면~12면 - 『황정경』의 전반부 내용

13면 - 판독이 어려운 그림

14면 - 판독이 어려운 지면

『황정경』은 『태상황정내경옥경』의 일부이다.¹⁰⁾ 본래는 완전한 형태의 탁본으로 수집하였으나, 보존 과정에서 손실(損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총 14면의 분량만 남아 있는데, 보관 상태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글자의 판독이 어렵거나 뭉개진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해 보건대, 원래의 탁본 형태와 수준은 매우 양호하였을 것이다.

Ⅲ. 『황정경』의 철학적 생명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의 사상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기화론(氣化論)의 우주생성론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배타적 절대자의 창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지속하는 기(氣) 운동의 연속성 속에서 우주만물을 이해하는

10) 『태상황정내경옥경(太上黃庭內景玉經)』에 관한 서지해제는 周谷城 編, 『中國學術名著提要-宗教卷』, 復旦大學出版社, 1997, 726쪽, <太上黃庭內景玉經> 참조.

입장이다. 우주자연은 전체성의 차원에서 동질성의 질료로 이루어지고, 우주만물은 차별 없는 등가적 개별자들로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임시적 상태로 이해된다.

“우주의 개별 사물은 다른 사물들과 어울려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적 존재들이다. 이러한 생성·소멸의 무한한 운행 과정 자체가 우주자연이다. 이것은 개별자로서의 만물이 상생(相生)과 상성(相成)의 과정을 지속해가는 것과 같다. 생(生)과 사(死)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에서 전화(轉化) 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11)

이런 사유방식을 이론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구축한 사상가들은 춘추시대에 등장한 도가의 지식인들이다. 노자와 장자 그리고 열자가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들은 우주의 통일적 생명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인간의 생명을 이해한다.

“우주자연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 홀로 생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12)

어떤 개별자도 배타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언제나 타자(他者)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가 임시로 유지될 수

11) 김백희, 「기후변화 시대의 도가윤리 시론」, 『생명연구』, 43집, 생명문화연구소, 2017, 24쪽.

12) 『노자』 7장,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김백희, 2017, 24쪽. 재인용.

있다. 영원불변의 개별자는 없으며, 모든 개별자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임시로 개별자의 모습을 지니며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유가 가능한 것은 우주자연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이해하는 세계관을 전제로 지니기 때문이다.¹³⁾

도교는 근본적으로 춘추시대 도가로 분류되는 노자와 장자가 구축해 놓은 기화론의 우주생성론을 수용한다. 이 점이 복잡다단한 분파와 소의(所依) 경전의 상이성을 보이는 도교를 하나의 울타리로 묶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¹⁴⁾ 그러므로 도가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도교의 생명관은 근본적으로 기화론에 입각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교의 입장에서 우주자연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우주자연 속에서 수많은 삼라만상과 존재론적 동질성을 갖는 인간도 하나의 우주적 생명체일

13) 도가의 세계관을 설명할 때, 핵심 개념이 되는 도(道)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견해가 있다. “노자가 말한 도는 무형의 정기(精氣)들이 혼연일체된 혼돈의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의 정기는 서양에서의 원소와 같이 단순히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생명력을 통하여 자기전개를 갖는 물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정기들이 단순히 물체를 이루는 원소와 같은 것이라면 능동적인 자기 전개를 통해 무한한 만물을 생겨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는 부단히 활동하는 생명력을 가진 입자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생명체이다.” 김경수, 『노자 생명사상의 현대적 담론』, 문사철, 2010, 178쪽.

14) “‘도교’를 명명(命名)하는 경우에 보다 엄밀한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도에 관한 학파’라는 <도가(道家)>와 <도교(道敎)>를 구별하는 것인데, 도교는 “도에 관한 교의(敎義)”라는 의미로 명명된 것이며, 이 도교는 전통적으로 서기 142년에 창시되었다고 본다. 최근까지도 도교 연구자들, 특히 서구의 연구자들은 <도가>와 <도교>의 사이를 유형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구분한다. 게다가 최근의 사람들 중에는 중세 시기(서기 220년 한나라 왕조의 멸망에서 서기 618년 당나라 왕조 수립 초기까지) 도교의 종교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근원을 둔 “신비 철학(mystical philosophy)”의 측면을 <도교>안의 요소와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있다.” 노먼 지라르도 외 편, 김백희 옮김, 『도교와 생태학』,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439쪽.

뿐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단지 우주적 질료인 기(氣)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중국 의학과 철학에 관한 서양의 해석은 종종 중국적 몸 혹은 자아의 전일성을 강조한다.”¹⁵⁾

는 것이다. 전일성(全一性; wholeness)은 우주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통일적 전체로서의 성질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전체론(全體論; holism)의 핵심 개념으로서 도가와 도교의 우주생명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서양의 인간관에 큰 영향을 끼친 이원론-신성한 정신과 부패한 육체, 비물질적 정신과 물질적 몸의 대비-에 반하여, 그런 이원론의 결여, 즉 전일성은 중국의 중요한 특성으로 두드러진다.”¹⁶⁾

인간의 심신에 관한 『황정경』의 생명관은 전통적인 동양의 학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동양의학이 인간의 몸이 지닌 생리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도교의 사상은 육체적 몸의 범위를 넘어서 마음의 위상을 몸과 같은 존재론적 연속성 속에서 이해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우주적 합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유지평의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몸과 마음은 하나의 기로 이루어지는 하나인 생명의 두

15) 구리야마 시게히사, 정우진·권상옥 옮김, 『몸의 노래, 동양의 몸과 서양의 몸』, 이음출판사, 2013, 181쪽.

16) 구리야마 시게히사, 2013, 181쪽.

현상이다.¹⁷⁾ 『황정경』은 종교적 경전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양생수련의 방법을 통하여 세속적 한계를 넘어서는 우주적 합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¹⁸⁾ 심지어 구체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¹⁹⁾

上有魂靈下關元 위에는 혼령이 깃든 간폐(肝肺)가 있고
아래는 근원의 단전이 있네.
左爲少陽右太陰 왼쪽은 소양이요 오른쪽은 태음이로다.
後有密戶前生門 뒤로는 그윽한 신장(腎臟)이요 앞에는
생명의 문이라.
出日入月呼吸存 호흡이 들고 낮에 음양 두 기운 갈마드네.

- 17) 김지현, 「도교의 신체론과 의학지식-『황정경』과 『대동경』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43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15, 181쪽. “『황정경』과 『대동경』은 모두 오장육부와 체내신의 존사(存思)를 중시하여, 의학지식과 도교사상의 융합을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주목받아 왔다. 『황정경』과 『대동경』의 신체 인식과 그 바탕이 된 의학지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장(五臟) 중심의 장부론에서 심신(心腎)을 중심으로 한 경맥론으로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이들 경전의 해석사 속에서 소위 심신교구(心身交媾), 즉 신장과 심장의 수화(水火) 이기의 융합과 임맥에 따른 수행법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 시대 이후의 해석경향이다. 그 전환점은 송대를 전후로 한 내단의 유행과 의서(醫書)의 경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황정경』의 수행방법이 동양의학의 기초 위에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잘 구명하고 있다.
- 18) 『태상황정외경옥경(太上黃庭外景玉經)』·『태상황정내경옥경(太上黃庭內景玉經)』·『태상황정중경경(太上黃庭中景經)』 3부의 경전은 비록 약간의 차별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초기 도교의 상청파(上清派) 양생수련의 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19) 『황정경』에 대한 의학적 성격에 입각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이미 학계에 핵심이론이 공유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창록, 『황정경 연구』, 태학사, 1998, 그리고 김지현, 「도교의 신체론과 의학지식-『황정경』과 『대동경』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43집, 한국도교문화학회, 이봉호, 「『황정경』의 존사신신법과 화려한 몸 속 세상-해부학의 도입인가 내시법의 발전인가?-」, 『동양철학』, 30집, 한국동양철학회, 2015, 『新譯 黃庭經·陰符經』, 劉連明·顧寶田譯, 三民書局, 2008, 등에서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四氣所合列宿分 사계절 기운이 몸에 깃들어 별처럼
빛나도다.²⁰⁾

이 시가(詩歌) 풍격의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우주적 지평에서 우주자연과 존재론적으로 일체가 되어 생명을 영위해가는 모습의 감응(感應)이다. 『황정경』은 인간을 배타적 존엄성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주변화의 출렁임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혼령은 간과 폐에 깃드는 우주적 기의 영험성이며, 단전(丹田)의 바다에 응축되는 우주적 생명 기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음양의 두 기운생동(氣運生動)은 상호보완의 관계로 미묘한 작용을 지속하면서 우주적 생명의 지속성을 가능케 한다. 이런 우주적 기운생동과 인간 개체의 생명활동은 호흡을 통하여 교류하며, 사계절과 천체운행의 지평으로 확장된다.

六腑五臟神體精 육부와 오장은 정기와 신기의 일체로다.
皆在心內運天經 모든 활동이 마음의 길을 따르네.
晝夜存之自長生 밤낮으로 마음을 보존하니 저절로
장생하도다.²¹⁾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오장(五臟)과 육부(六腑)는 신령한

20) 「상유장(上有章)」『태상황정내경옥경』 2장, 선교장 탁본 이미지 7면.

21) 「심신장(心神章)」『태상황정내경옥경』 8장, 선교장 탁본 이미지 9면.

기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관이다. 이런 장기들의 기능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용되는 것인데, 그 바른 길은 몸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마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보존하는 것이 몸의 건강한 기능발휘에 지침이 된다. 몸을 주재하는 역학의 마음과 그 마음의 길을 따르는 몸은 근원적으로 하나의 우주적 기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 몸의 생리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심리적 작용과 다른 작동방식(medical system)으로 운동한다고 여긴다.²²⁾ 그러나 『황정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기로 이루어지며, 기의 양태에 따라 인간을 이루는 부분적 요소가 차이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정신을 이루는 기는 손과 발을 이루는 기와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기이지만, 기의 양태에 따라 신기(神氣)·정기(精氣)·형기(形氣) 등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장기인 육부와 오장은 정기와 신기의 일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기관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 주재적 위치를 차지하는 마음의 길을 좇을 때 가장 온전한 상태로 생명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교 양생수련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바, 마음의 수양이 몸의 수련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22) 구리야마 시게히사, 2013. 이 책은 서양과 동양의 심신이해 방식의 차이를 구명하면서, 이에 따르는 의학적 세계관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治生之道了不煩 생명을 다스리는 방법은 번잡하지 않구나.
但修洞玄與玉篇 그저 『통현경』²³⁾과 『황정경』을 수련하면
그만이라.

兼行形中八景神 몸속의 여덟 곳 신통처를 사려하라.
二十四真出自然 상원 중원 하원의 진기가 저절로
나타나리라.

이 구절을 읽다보면,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신선이란 주어진 생명의 기운생동을 자연의 법칙에 맞게 작동하도록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본래 신선이란 서양의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배타적 신성(神性)과 전혀 다르다. 신선은 세속의 물욕과 집착을 벗어나 무위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우주적 지평의 생명 경지를 말한다. 『황정경』이 말하는 양생과 수련의 핵심은 무위자연의 원리를 구체적 몸의 기능발휘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며, 몸이 우주자연의 기운생동에 일치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치생의도(治生之道)는 사회적으로 명리(名利)를 탐내는 부자연한 마음을 지양하고, 무욕(無欲)의 마음과 무위자연의 몸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 『황정경』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마음의 병든 욕망을 단절시키고, 차분한 심리상태에서 호흡을 조절하며, 몸속에 무위자연의 진기(眞氣)를 축적하여 우주적 생명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精)·기(氣)·신(神)을

23) 『통현경(通玄經)』은 도교 상청파의 주요 경전 중 하나이다.

‘황정(黃庭)’에 조화로이 안착시키는 것이다. 황정이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터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황정(黃庭)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뇌(上黃庭)·심장(中黃庭)·비장(下黃庭) 등을 말하기도 하고, 인체 장기의 여러 부분 사이에서 한 가운데를 상징하는 비유적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래 황색(黃色)은 중국의 사유방식에서 중앙을 의미하고, 정(庭)의 의미도 사방(四方)의 한 가운데인 중앙을 가리킨다.

요컨대, 『황정경』에 따르면, 진기가 인간의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운행하도록 하여 소박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합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심신합일(心身合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바로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양태의 기가 본연의 우주적 기의 상태와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이다. 즉 자연과 인간이 우주적 생명의 근원적 상태로 혼연일체를 이루게 되며, 이 상태가 바로 장생불사가 가능한 신성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신선이란 개체의 자아가 우주적 자아와 상시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일종의 탈속적 경지를 말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강릉 선교장에서 소장되어 온 장서(藏書) 속에 포함되어 있던 『황정경』 탁본을 바탕으로 도교의 철학적 생명사상을 조명하였다. 이 탁본은 『태상황정내경옥경』의 일부이며, 조선후기 향촌의 사대부 선비들이 도교의 양생수련에 관심을 갖고 수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은 조선왕조의 국가이념인 주자성리학의 이론과 명분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신분적 상승의 활로가 되는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유교의 경전인 사서오경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윤리규범도 유교의 가르침을 준수하였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유교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이며, 공동체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일종의 족쇄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사적 변환에 따라 유교의 이념은 점차적으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장악력을 상실해갔다. 이는 구체적으로 실학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민족종교의 발흥 양상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격동기의 도래와 함께 유교 이외의 사상과 문화가 사회문화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연경을 통해 수입된 서양의 근대 지식과 서양 선교사들의 전파에 의한 서구 기독교의 전래 등은 조선시대 사회문화의 격변과 변동을 부채질 하였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강릉 선교장의 소장도서 목록

에 도교의 핵심 경전인 『황정경』이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의 독서 목록이 확장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서학의 다양한 서적들뿐만 아니라, 도교와 불교의 경전들도 포함되었다. 그 중에 『황정경』은 도교의 양생수련을 이야기하는 핵심경전의 하나이다.

『황정경』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내세우는 가치지향적 세계관보다는 무위자연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더 선호한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인의예지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현실의 문화생활을 고단하게 지속해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의 본연성을 실현하면서 우주자연과 존재론적으로 합일하는 전일적(專一的) 탈속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신체의 기능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 길이 바로 양생수련의 방법이다. 즉 마음의 안정과 무욕을 이루어 도를 지키며(虛無守一), 이 마음의 길을 따라(存思)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생리적 기능을 활성화하며 [통신(通神)], 우주자연의 기운과 합일(天人合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황정경』이 말하는 양생수련의 정도이며, 장생불사의 경지에 이르는 신선의 길이다.

이와 같은 도교의 양생수련 이론은 현대의 세계관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심각한 지구환경오염과 생태환경의 파괴에 직면해 있다. 인류는 스스로 저질러 놓은 패악(悖惡)의 행위 때문에 자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우주자연을 이해하는 인간중심주의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다. 도교의 사유는 언제나 우주적 생명체의 관점에서 삼라만상과 우주자연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문제는 미시적인 지구 ‘환경’의 문제로 보는 시

각에서 벗어나, 우주자연의 맥락에서 지구를 이해하고 인간을 조망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요청된다.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를 평등한 개별자로 인식하고 우주적 생명의 자원에서 생물권을 고려해야 한다. 도교의 철학적 세계관은 인간의 미래를 위한 세계관의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숙고해야할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구리야마 시게히사, 정우진·권상옥 옮김, 『몸의 노래, 동양의 몸과 서양의 몸』, 이음출판사, 2013.
- 김경수, 『노자 생명사상의 현대적 담론』, 문사철, 2010.
- 김민현, 「강릉 선교장 장서의 서지학적 고찰」, 『장서각』, 3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 김백희, 「기후변화 시대의 도가윤리 시론」, 『생명연구』, 43집, 생명문화연구소, 2017.
- 김백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선비-조선시대 사대부의 윤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김지현, 「도교의 신체론과 의학지식-『황정경』과 『대동경』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43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15.
- 노먼 지라르도 외 편, 『도교와 생태학』, 김백희 역,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이봉호, 「『황정경』의 존사신신법과 화려한 몸 속 세상-해부학의 도입인가 내시법의 발전인가?-」, 『동양철학』, 30집, 한국동양철학회, 2015.
- 임호민, 「18-9세기 선교장의 지역적 위상 변화의 추이」, 『장서각』, 3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 周谷城 編, 『中國學術名著提要-宗教卷』, 復旦大學出版社, 1997.

차장섭, 「강릉 선교장의 형성과 발전」, 『장서각』, 39집, 한국
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8.

최창록, 『황정경 연구』, 태학사, 1998.

『老子』『諸子集成』 3, 中國: 岳麓書社, 2004.

『道藏』 5, 中國: 上海書店出版社, 1996.

On Life of Huang-ting jing(黃庭經) at Seongyojang(船橋莊) in the Gangneung

Kim, Baeghee

(Academy of Korean Studies)

Huang-ting jing(黃庭經) is in the books housed at Seongyojang in Gangneung and collected by Jangseogak. This document of Huang-ting jing is part of rubbing(拓本). the founder of Seongyojang is Lee nae Bon(李乃蕃), who went to Gangneung at the time of growing conflict between the Sajok of the Gangneung region, were able to maintain their status as a Hyangban(鄉班). Vol. 50, Nov 2018 was included on the list of his library catalog. there we see that Gangneung Confucian literati(士大夫) read this book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the Vol. 50, Nov 2018 take a firm stand that human body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smic system and human medical system. Taoists regard the cosmos as an endless transformation. Human being is can be Taoist hermit(神仙) through the taoist training. the achievement Taoist hermit is based upon the organic view of the world. Before all things in the cosmos, Human being is all equal.

All things are both value neutral and characterized by intrinsic balance and fluidity. As Taoist Environmental ethics of wuwei-ziran(無爲自然), Human being could live a greener lifestyle for a sustainable future of the Planet.

Subject: Oriental philosophy, Taoism

Key Words: *Huang-ting jing*(黃庭經), rubbing(拓本),
Confucian literati(士大夫), Taoist hermit(神仙),
wuwei-ziran(無爲自然)

- 7술 者奉焉結盟立誓，期以勿泄 °古有盟用玄雲之錦九
 8술 十尺，金簡鳳文之羅四十尺，金鈕九雙，以代割發敵血
 9술 (勿泄)之約 °此物是神鄉之奇帛，非赤縣之所有也 °今

5면

- 1술 (錦)可用白絹，(羅)可用青布，鈕可用金釵，亦足以誓信九
 2술 天，制告三官矣皆奉有經之師，散之寒棲 °違盟負信²⁶⁾
 3술 七祖受考於暘谷河²⁷⁾，身爲下鬼，考於風刀也
 4술 一人受書，得傳九(人)審視形氣，必慈仁忠信 〃耽玄注
 5술 真者 〃不毀真正 〃敬樂神仙者，乃可示耳 °自非其才，是爲
 6술 漏泄 °謹量可授，亦誠難也又當先求感應，推訊虛靈
 7술 者乃佳也 °審可傳，是將得夢以告悟²⁸⁾ °臨時之宜，亦玄
 8술 解於心矣 °宣泄之科既重，傳之者良爲嶮巖 °有黃庭
 9술 內經之子，寧慎密之哉

6면

- 1술 讀黃庭內景經者，常在別室燒香潔盛²⁹⁾，乃執之也. 諸有
 2술 此經，能辟百邪 °若入山林空暗之地，心中震怖者，正心
 3술 向北讀內經一過，即神靜意平，如與千人同旅而止
 4술 能讀之萬過，自見五藏腸胃，又見天下鬼神，役使(在己)
 5술 若困病者，心存讀之，垂死亦愈大都通忌食六畜
 6술 及魚臊肉忌五宰淹漚之事，脫履淹漚之者³⁰⁾，沐浴盥漱
 7술 燒香於左，讀經一過，百病除也
 8술 太上黃庭內景玉經 (?)帝內經 臧湯(?)(?)
 9술 (上清)紫霞虛皇前，太上大道玉晨君閑居蕊珠作

26) 『道藏』本; 違盟負約

27) 『道藏』本; 七祖受考於暘谷河源

28) 『道藏』本; 亦將得夢以告悟

29) 『道藏』本; 常在別室燒香潔淨

30) 『道藏』本; 若脫履淹漚之者

7면

1줄 (七)言, 散化五形變萬神 是爲黃庭曰內篇 琴心三
 2줄 疊僂胎仙 九氣映明出霄間 神蓋童子生紫煙 是
 3줄 曰玉書可精研 詠之萬過升三天 千災以消百病痊
 4줄 不憚虎狼之凶殘 亦以卻老年永延³¹⁾ 上有魂靈下關
 5줄 元 左爲少陽右太陰 後有密戶前生門 出日入月呼
 6줄 吸存 四氣所合列宿分³²⁾ 紫煙上下三素雲 灌溉五華
 7줄 植靈根 七液洞流冲廬間 回紫抱黃入丹田 幽室內明
 8줄 照陽門³³⁾ 口爲玉池太和宮 漱咽靈液災不幹 體生光
 9줄 華氣香蘭 卻滅百邪玉煉顏 審能修之登廣寒

8면

1줄 晝夜不寐乃成真 雷爲電(激)神泯泯³⁴⁾ 黃庭內人服錦
 2줄 衣 紫華飛裙雲氣羅 丹青綠條翠靈柯 七蕤玉龕
 3줄 閉兩扉 重扇金闕密樞機 玄泉幽闕高崔巍 三田之
 4줄 中精氣微 嬌女窈窕翳霄暉 重堂煥煥明八威 天
 5줄 庭地闕列釜斤 靈台磐固永不衰³⁵⁾ 中池內神服赤
 6줄 珠³⁶⁾ 丹錦雲袍帶虎符 橫津三寸靈所居 隱芝翳鬱
 7줄 自相扶³⁷⁾ 天中之嶽精謹修 靈宅既清玉帝遊 通利
 8줄 道路無終休 眉(號華)蓋覆明珠 九幽日月洞空無
 9줄 宅中有真常(衣)丹 審能見之無疾患 赤珠(靈)裙

31) 여기까지 1장 「上清」

32) 『道藏』本; 元氣所合列宿分

33) 여기까지 2장 「上有」

34) 여기까지 3장 「口爲」

35) 여기까지 4장 「黃庭」

36) 『道藏』本; 中池內神服赤珠

37) 여기까지 5장 「中池」

9면

- 1줄 華茜榮 舌下膺玄生死岸 出青入玄二氣(煥) 子若
- 2줄 遇之升天漢³⁸⁾ 至道不煩訣存真 泥丸百節皆有神(拔)
- 3줄 神蒼華字太元 腦神精根字泥丸 眼神明上字英
- 4줄 玄 鼻神玉壘字靈堅 耳神空閑字幽田 舌神通命字
- 5줄 正倫 齒神峨峰字羅千 一面之神宗泥丸 泥丸九真
- 6줄 有房 方圓一寸處此中 內服紫衣飛羅裳 但思
- 7줄 一部壽無窮 非各別住俱(腦)中 列位次坐向外方 所
- 8줄 存在心自相當³⁹⁾ 心神丹元字守靈 肺神皓華字虛
- 9줄 成 肝神龍煙字含明⁴⁰⁾ 翳鬱道煙(主)濁清⁴¹⁾ (腎)神(玄)冥

10면

- 1줄 字育嬰 脾神常在字魂停 膽神(龍)曜字威明 六府
- 2줄 五藏神體精⁴²⁾ 皆在心內運天經 (晝)夜存之自長生⁴³⁾
- 3줄 肺部之官似華蓋 下有童子坐玉闕 七元之子
- 4줄 主調氣 外應中嶽鼻臍位 素錦衣裳黃雲帶
- 5줄 喘息呼吸體不快 急存白元和六氣 神仙久視
- 6줄 無災害 用之不已形不滯⁴⁴⁾ 心部之官蓮含華 下(有)
- 7줄 童子丹元家 主適寒熱榮(衛和) 丹錦飛裳披玉
- 8줄 羅 金鈴朱帶坐婆娑 調血理命身不枯 外應口
- 9줄 舌吐五華 臨(絕)呼之亦登蘇 (久久)行之飛(太霞肝)⁴⁵⁾

38) 여기까지 6장 「天中」

39) 여기까지 7장 「至道」

40) 『道藏』本; 肝神龍煙字台明

41) 『道藏』本; 翳鬱導煙主濁清

42) 『道藏』本; 六腑五臟神體精

43) 여기까지 8장 「心神」

44) 여기까지 9장 「肺部章」

45) 여기까지 10장 「心部章」

11면

- 1줄 (部之)宮翠(重)裏⁴⁶⁾ 下有(青)童神公子 (主諸關鏡)
 2줄 聰明始 青錦披裳佩玉鈴 和制魂魄(津)液平 (外)
 3줄 應眼目日月清 百療所鍾存無英 同用七日自
 4줄 充盈 垂絕念神死複生 攝魂還魄永無傾⁴⁷⁾ 腎部
 5줄 之宮玄陰圃 中有童子冥上玄 主諸六府九液
 6줄 源外應兩耳百液津 蒼錦雲衣舞龍潘 上致明
 7줄 霞日月煙⁴⁸⁾ 百病千災急當存 兩部水王對生門 使
 8줄 人長生升九天⁴⁹⁾ (脾)部之官屬戊(巳) 中有明童黃裳
 9줄 裏 消穀散氣攝牙齒 是爲(太倉兩明童) 坐(在金臺)

12면

- 1줄 合城九重⁵⁰⁾ 方圓一寸命門中 主調百穀五朱香 辟(卻虛)
 2줄 羸無病傷 外應尺宅氣色芳 光華所生以表明 黃
 3줄 錦玉衣帶虎章 注念三老子輕翔 長生高仙遠死
 4줄 殃⁵¹⁾ 膽部之宮六府精 中有童子曜威明 雷電八振
 5줄 揚玉旌 龍旗橫天擲(火鈴) 主諸氣力攝虎兵 外
 6줄 應眼童鼻柱間 腦發相扶亦俱鮮 九色錦衣綠華
 7줄 裙 佩金帶玉龍虎文 能存成明乘慶雲 役使萬神
 8줄 朝三元⁵²⁾ 脾長一尺掩太倉 中部老君治明堂 厥(字)
 9줄 靈元名混康 治人百病消穀糧 黃衣紫帶龍(虎)章⁵³⁾

46) 『道藏』本; 肝部之中翠重裏

47) 여기까지 11장 「肝部章」

48) 『道藏』本; 上致的霞日月煙

49) 여기까지 12장 「腎部章」

50) 『道藏』本; 坐在金合城九重

51) 여기까지 13장 「脾部章」

52) 여기까지 14장 「膽部章」

53) 여기까지 15장 「碑長章」 처음 부분. 이하 36장 「沐浴章」까지의 내용은 망실(亡失)된 것으로 보인다.

13면 그림⁵⁴⁾

14면 공란(空欄)⁵⁵⁾

54) 그림 부분은 흐려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

55) 마지막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2) 선교장 소장 『황정경』 이미지



























